

---

# 5분 자유발언

-고성군 내 공원묘원에서 조화사용 금지 캠페인 제안-

---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원묘원 내 조화 사용 금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묘지에 놓인形形色색의 조화는  
언뜻 보기에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조화에서 납,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SCCPs)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매립으로 처리해야 하며  
처리 과정 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화의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매년 플라스틱 조화 수입량은  
2천 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화’ 라고 하지만,  
사실상 ‘플라스틱 덩어리’ 인 셈입니다.

이는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고성의 깨끗한 자연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공원묘원의 조화 사용을  
근절하려는 노력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라이플라워 자판기 설치, 생화 후불제 공급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공원묘원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 정착을 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성군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화 사용 금지 정책 추진에 있어  
조화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감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부녀회 등에서 조화 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분들이  
생화 판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화훼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생화 판매 교육, 판로 확보, 초기 자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생화 소비 촉진으로 지역 화훼 농가 활성화,  
꽃집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화의 유해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석, 설 명절 등  
묘지 방문객이 많은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조화 사용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현수막, 팸플릿 배포,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추모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이 깨끗한 환경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공원묘원에서 조화 사용 금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 추모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고성군을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